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한 생각 접고 보면

〈장자(莊子)〉의 달생편에 나오는 싸움 닭(木鷄)에 대한 이야기이다. 닭 싸움을 즐겨보는 왕이 투계 조련사로 유명한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천하제일의 싸움 닭 조련을 부탁한다. 열흘 간격으로 기성자가 왕에게 싸움닭의 조련 상태를 보고한다.

1. 허세를 부리며 깃털을 세워 상대를 얕잡아 기운을 뽐내려 한다.
2. 닭의 울음소리와 모습을 보면 덤벼들 기세로 힘을 과시 한다.
3. 상대 닭의 허점을 노리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공격하려 한다.
4. 상대 닭을 만나도 나무로 만든 닭과 같아 평정심의 덕(德)과 용(勇)을 갖추어 어느 싸움닭도 그 모습만 봐도 공격할 틈새가 없어 겁에 질려 도망 가려한다.

투계 조련사인 기성자의 설명을 듣고 왕은 목계(木鷄)에 매우 만족해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武士)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고지로의 대결이 담긴 책이 〈궁본무장(宮本武藏)〉이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평민 출신이다. 만을 몰고 온다. 쓸 곳은 많으나 주머니는 비어있고 그리운 얼굴은 많으나 먼 거리에서 등 돌린 지 오래이다.

가난에서는 언제나 신기하게도 소리가 나는 법이다. 마음속에 구멍이 송송 뚫린듯한 공허함과 쓸쓸함에서는 소리 대신 죽음의 냄새가 풍겨온다.

있을 때는 몰려오고 없을 때는 사라지는 세상만사의 오고감이 허무의 그림자로 삭신 깊이 길게 누워 몸과 마음이 저리고 아프다. 종교의 신앙 쪽에서도 돈타령이고 남녀 교제에서도 돈의 위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살고 싶으나 살 기력이 없고 죽고 싶으나 죽을 용기가 없어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어둠에 갇혀 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장자(莊子)〉의 달생편에 나오는 싸움닭 목계(木鷄)로 되돌아가보자. 흔히들 목계에 이르러야 싸움닭이 완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목계(木鷄)에 이르는 과정이 더욱 아름답고 살맛나는 풍경이다. 토라지고 뽐내고 티내며 으스대는 것이 졸부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완벽보다는 사람 냄새가나서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성공의 성취욕도 중요하지만 실패의

최고의 스승은 내 주위에 있다
내 이웃과 자연이 삶의 길잡이

스승 없이 자연의 섭리를 스승삼아 무술의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는 진검이 아닌 목검으로 천하제일의 칼잡이가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사사키 고지로는 무예 명문가계로 이어지는 무림(武林)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상의 칼잡이 기술을 연마해 검술의 으뜸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들 두 사람은 〈궁본무장〉 소설의 끝부분에서 대결하게 된다. 사사키 고지로는 천하의 명검을 들고도 목검의 미야모토 무사시 일격에 그야말로 묵사발이 된다.

자, 우리네 삶의 현장은 팍팍하고 고단하다. 살벌하고 힘에 겹다. 배고프고 목마르다. 흔들리고 헐떡인다. 불만과 권태는 나이테처럼 그 둘레를 넓혀가고 어둠의 그림자는 우울증처럼 몰려온다. 삶의 무게가 세월의 무게로 가슴을 짓누르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겹쳐 얽히고설킨 실타래 같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지 오래고, 대화의 상대자마저 이해의 결핍으로 멀어진지 오래이다. 터널에 갇힌 삶이 호롱불빛이라도 찾아 헤매나 둘레는 적막강산으로 절대고독 쓰린 다짐이 사람을 철들게 하고 사람답게 키우는 법이다.

청춘만 아픈 게 아니다. 인생살이는 아파야 살 맛 나는 것이다. 흔들리고 더러는 헐떡이며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삶이 소중하고 값지며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목계는 완벽해 닭답지 않다. 사람도 완벽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다. 부정적인 착각을 긍정적인 착각으로 되돌리며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명심할 일이다.

종교와 성직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그대로 복지국가요, 살기 좋은 세상이다. 〈궁본무장〉의 교훈처럼 최고의 스승은 높은 곳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 자연 그대로가 최상의 스승이자 교과서이며 삶의 길잡이인 것이다. 누구나 홍길동이 될 수 있듯 나무칼(木劍)로 진검(眞劍)을 이긴 미야모토 무사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생각만 접고 보면 어둠이 빛이 된다. 절망이 희망이 된다. 슬픔이 기쁨이 된다. 극락세계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것이다. 내숭 뚝! 체면치레 뚝!

마음법 전하니, 선종이 우뚝서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선종의 육조 혜능(慧能:638~713) 대사는 매우 드라마틱한 생애를 산 인물이었다. 한 인물의 생애가 전설로 엮어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 숙생의 선근인연이 성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살던 가난한 나무꾼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읽고 쓰지도 못했다는 그가 저자거리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발심출가 하여 오조 홍인 회상을 찾아갔다는 것과 8개월 허리에 돌을 달고 방아를 찧다 신수 대사의 게송을 능가하는 게송을 지어 야밤에 오조로부터 몰래 조사위(祖師位)를 전해 받았다는 일화는 상식을 뛰어 넘는 이야기다.

대유령에서 의발을 빼앗으러 뒤쫓아 왔던 몽산 스님을 깨우쳐 준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 16년 동안 사냥꾼 무리에 섞여 은둔생활을 하게 된다.

그가 은둔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은 광주 법성사에서 인종(印宗) 화상을 만나면서부터다.

인종 화상이 〈열반경〉 강설법회를 열고 있던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객이 법성사에 나타났다.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젊은 스님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논쟁을 하고 있었다.

마당가에 기(旗)를 거는 게양대에 바람이 불어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이를 보고 두 스님이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하면서 언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깃발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움직이는 것은 결국 바람이라고 한 사람은 주장하고, 또 한 사람은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깃발이 펄럭이므로 움직이는 것은 깃발이라는 것이었다. 한쪽에서 이 말을 들고 있던 당시의 노행자(육조 혜능 대사)는 언쟁을 만류하려는 듯이 한 마디 덧붙였다.

"스님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입니다."

의외의 말에 두 스님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곧장 인종 스님에게 뛰어가 노행자의 말참견한 말을 전했다. 인종 스님은 노행자를 모셔오게 한다. 인종이 물었다.

"조사의 법을 전해 받은 이가 남쪽으로 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 조사위를 전해 받고 내려온 분이 아니십니까?"

때가 온 줄을 안 노행자는 사실대로 말하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인종 스님에게 밝혔던 것이다.

이리하여 비로소 노행자가 인종 스님에 의해 득도되어져 스님이 되었다. 조사위를 전해 받은 사람이 스님이 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러나 법맥 계승을 두고 보면 인종 스님이 노행자 혜능 대사의 법을 전해 받은 제자 위치에 서게 되고 동시에 노행자를 득도시킨 은사가 된 것이다.

육조 혜능 대사는 중국 선종의 기반을 닦아 꽃을 피우게 한 장본인이다. 일화오엽(一花五葉)이라는 말이 생긴 것처럼 선종의 다섯 종파가 육조 혜능 대사를 기점으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게 되었다. 육조 대사는 쌍봉산 조계(曺溪)에 보림사(寶林寺)를 개설하여 선법을 펴기 시작한다. 그 후 대범사에 머물면서 승속을 교화하면서 법문을 설한 것이 〈육조단경〉이다. 제자 법해 스님에 의해 집록된 이 책은 선종사에서 불멸의 위치를 차지하는 선서(禪書)로 5가 7종의 법이 모두 이 단경으로부터 나왔음은 물론 후대의 선불교를 지배하는 이념적 근원이 되었다. 선종 초조가 달마 대사이긴 하나 실제적인 선의 정착은 육조 혜능 대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면 바로 부처가 되느니라."(菩提自性 本來淸淨 但用此心 直了成佛)

〈육조단경〉 4구계라고 할 수 있는 말이며 돈오의 종지를 드러낸 말이다. 근세의 중국 정치가 모택동이 〈육조단경〉을 매우 좋아하고 애독했다고 한다. 1989년에 발간된 '중국을 움직인 30권의 책' (원명 〈影響中國歷史的三十本書〉)에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명저 30권(실제33권)을 뽑아 내용을 요약, 수록하였는데 불교 서적은 오직 〈육조단경〉만 들어가 있다.

"보이는 일체는 대상에 의해 존재"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⑥ 존재와 마음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반재해와 자연재해는, 우리들의 물질만능의 탐심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진 자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여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는 상대적 빈곤인 물질 만능의 탐욕이, 물질을 남용하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여 크고 작은 무수한 재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남용되지 않고 자연은 훼손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병이 걸린 사람이 허공에 핀 허공 꽃을 보는 것과 같이, 구하고 얻으려는 우리들 욕망의 분별망념이 남용되고 파괴되는 것을, 마치 물질이 남용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것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해와 그에 따른 모든 고통은 오직 우리들 분별망념의 업보(業報)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서산 대사는 승병을 이끌고 재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진묵 선사는, "그는 참된 승이 아니고 명리승(名利僧)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서산 대사는 4지 보살이고 진묵 선사는 8지 보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4지 보살은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에 해당하고 8지 보살은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에 해당합니다. 식무변처정은 아직도 생각이 남아 있는 경계이고, 비상비비상처정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의 경계로서, 성인(聖人)의 경지에서도 4지 보살과 8지 보살은 이렇듯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네가 혹시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지금 바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네의 마음이다."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이다' 라고 하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이다 하며, 지금 허리 관절이 아플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왜냐 하면, 스마트폰은 나는 스마트폰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부처님은 나는 부처라고 하지 못하며, 허리는 스스로 아프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과 부처님과 아픈 허리는 무엇인가? 지금 스마트폰과 부처님, 아픈 허리가 없으면 마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부처님, 아픈 허리가 마음이고, 마음이 스마트폰, 부처님, 아픈 허리로서 일체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스마트폰이라고 말한다면, 말하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하는 것이며, 스마트폰을 말하는 것이므로 스마트폰과 마음은 둘이 아닌 한 마음인 것입니다.

보는 눈과 스마트폰, 부처와 중생, 아픈 허리와 아픈 느낌,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 티끌 같은 일체의 상대법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원융하게 융통 자재하는 것이 진공(眞空)이고 융통하는 진공이 되면, 티끌 같은 일체의 상대법이 그대로 묘한 작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삼아승지겁의 백천이나 되는 명호가 있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이름을 세우기 때문이다. 대상에 따라 색이 변하는 마니주(摩尼珠)와 같이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의 끝 부분에서, 항상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하십니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티끌이 티끌이 아니다. 이름이 티끌이다' '이름이 부처이고 이름이 여래이다' 라고 하셨으며, 또한 〈능가경〉에서는 삼아승지겁의 백천이나 되는 명호는 이 모두 여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칼은 스스로 자신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잘리는 대상이 없다면, 칼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부처님, 아픈 허리 등 일체는 대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아승지겁의 백천의 티끌 수와 같은 일체의 명호는 모두 마음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현문 현각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현인 보원 교무부장 자암 정오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관산 지륜 비구니부장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